

2014연대 사회계열 2번문제

제시문 (가)의 공평한 관망자는 이상적 존재로서, 공평한 관망자가 있다면 사회 내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공평한 관망자가 공감력과 상상력을 상실했을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공평한 관망자는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그가 이상적 존재로서의 조건을 잃었을 때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는 그 개인이 공감력과 상상력을 갖추으로써 또는 그것을 갖춘 다른 개인으로 대체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 개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사회적 규칙이 부재할 때 갈등은 발생할 수 있다. 이 또한 공평한 관망자의 선택원칙을 사회로 확장해 규칙이 조정될 때 해결 가능하다.

제시문 (나)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사회적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회 내 개인 간의 갈등은 발생하기 쉽지 않다. 만약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집단 간 갈등일 것이다. 이는 그 집단들을 포괄하는 더 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족과 부족의 갈등은 그들이 속해있는 나라의 이익을 추구할 때 해소되는 것이다.

제시문 (다)는 개인의 이기심이 집단에 비해 낮고 이타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사회 집단은 이기심일 무한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이 이기심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집단의 이기심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 세력인 양심적인 시민단체 등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라)는 시민적 우의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 사이에서의 합의를 통해 구현된다고 본다. 따라서 시민들이 도덕적이지 않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갈등은 시민들이 도덕성을 함양하여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공동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화합하는 노력을 할 때 해결될 수 있다.